

오늘 아침 저는 참으로 흥미있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진보 신학의 리더를 인터뷰한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학자의 말한 것은 제가 동의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제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십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글을 쓰는 것이 혹시 어떤 분의 믿음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고, 두번째는 나의 이글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편견없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저의 의견을 첨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 진보 신학을 대표(?)하는 주재용 박사의 말입니다.

기자가 주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진보 신학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주박사는

“신정통주의다. 극단적 자유주의신학에 반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 칼 바르트나 에밀 부른너 등의 신학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결코 극단적이지 않으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원주의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보수 신학과의 대립 속에서 얻게 된 오명이다. 장로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적 분위기에서 진보신학자들의 ‘성서 고등비평’ 등은 급진적 신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축자영감설, 축자무오설을 믿고 있던 한국교회는 당시 세계적 신학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서비평주의자들을 무조건 자유주의신학자들로 매도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장로교 신학을 주도했던 박형룡 박사는 그의 책 ‘근대기독교 신학난제선평: 학파편’에서 소위 정통신학 이외의 모든 신학을 자유주의신학 범주에 넣었다. 여기에는 칼 바르트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칼 바르트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신학은 자유주의신학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용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바르트 신학은 보수적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자유 주의 신학이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에 신정통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하여 바르트의 신학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정통신학과 비슷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도 안됩니다.

바르트가 도입한 신학적 전제는 위기(Crisis)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하나님께서 다가 오시면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의 위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자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 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것이 유한자인 인간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위기의 신학(Crisis Theology)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서도 타당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기로 보고 계시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면 신학자는 질문을 계속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위기로 보고 계시지 않는데 위기라는 전제 위에서 신학을 전개해 가면 멀지 않아 성경과의 불일치로 뼈거덕 대는 소리가 나고, 그 신학은 한 시대의 유행이라는 역사 속에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 오실 때 이것이 위기로서 인간에게 나타난다’

여기서 '위기'로 신학적 출발점을 삼아 질문을 하고 답을 해갈 때, 이것은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인본 주의적 신학이 됩니다. 이것을 정통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자유 주의 신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위기가 아닌 은혜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위기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다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학의 출발점으로 도입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위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로서 존재합니다.

나는 여기서 위기라는 용어의 신학적 도입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위기라는 용어로서 신학적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통 신학에서 위기 신학을 인본 주의적이다 자유 주의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학적 출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기라는 용어로서 신학적 출발점 즉 신학적 전제를 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아주 가까운데서 찾습니다. 문선명이는 우주의 원리가 음양의 원리라는 전제 위에서 이론을 펼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이론을 펼치면 하나님도 남녀의 성을 가져야 완전한 존재가 되고, 남녀가 하나로 결합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실패자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자이고 재림주로 자기아 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학적 이론을 세우려 할 때는 성경이 제시하는 전제 그것을 토대로 하여 논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다른 전제를 도입하여 신학적 설명하려 하면 그것은 끝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신학의 출발점, 전제는 하나님이여야 한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자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신학적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 위기라든지, 음양이론 이든지 그 어떤 것을 도입하여 신학의 출발점을 삼으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통일교와 위기 신학을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전개 기초가 되는 전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세기를 이끌던 자유 주의 시대는 가고 미국의 교계는 보수 주의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주의로 복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정통 주의를 받아 들였던 복장로 교회는 날로 교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진보 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1

역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 신학은 항상 대화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계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였다. 따라서 신학은 이중으로 발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신앙공동체의 내적 표현과, 교회가 존재한 그 시대의 사상적 반영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언제나 새로운, 신(新)신학이어야 한다. 시대는 늘 새롭게 변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도 책으로서의 성경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강조했다.

새로운 신학으로 항상 개혁된 교회만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 과거 우리에게 전해준 신학은 선교사들의 신학이지 우리의 신학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해 준 신학을 참고로 이 땅의 삶과 상황에 맞는 우리의 신학을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신학은 살아 있는 신학이 된다.”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어느 전도사가-제가 보기엔 주재용 교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통 신학을 서구의 관념화된 신학이라고 평하며 한국적 신학으로 목민 신학을 토착화하여야 한다는 글을 읽고 혼자서 실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읽고 그 전도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은 것이 15년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오늘 똑 같은 내용의 글을 주재용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발견하면서, 주 재용 박사님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주 재용 박사님은 적어도 15년이 넘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소리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과거 우리에게 전해준 신학은 선교사들의 신학이지 우리의 신학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해 준 신학을 참고로 이 땅의 삶과 상황에 맞는 우리의 신학을 창출해야 한다."

어떤 전도사는 "정통 신학은 서구의 관념화된 신학이며 한국적 신학으로 목민 신학을 토착화하여야 한다."

나는 흔히 정통 신학을 “죽은 교리적 지식”이라든가 명제적 지식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통 신학에 대한 이런 공격적 언사가 나온 것은, 종교 개혁이 끝나고 종교 개혁이 서구의 기독교 세계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 종교 개혁의 후계자들은 여러 가지 신조를 만들어, 그것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교리의 양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스콜라 주의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스콜라 주의의 반동으로 자유 주의 신학과 경건 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유 주의신학의 시조가 된 슬라이에르마허는, 그런 붕어빵처럼 찍어낸 교리적 고백을 낭송한다 하여 어찌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지 그런 붕어빵처럼 찍어낸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 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스콜라 주의의 신앙 고백을 죽은 교리적 고백이란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교리적 신앙 고백 내용이 필요없다고 해서는 않습니다. 적용은 틀렸지만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통 신학이 서구의 관념론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 신학을 하는 방법론적으로 관념론적 방법을 채택했지만- 정통신학이 추구하는 바는, 동서양 모든 인간, 인류의 창조 이래 모든 사람의 영원인 인간의 구원을 최대 관심사로 가지는, 그런 신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물론하고 동양인 아니 한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 신학이지 서구의 관념적 신학은 아닙니다. 관념론적 서구 신학이라는 말은 신학의 내용에 대한 명칭이 아니고 신학의 방법론적 명칭이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교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여 준 신학을 참고로 하여 이 땅의 삶과 상황에 맞는 신학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한국적 신학을 성경에서 창출했나요? 옛날이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의 반복이었으면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아무 것에도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 하여, 목민 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해방 신학이니 여러가지를 갖다 붙였지만, 그어떤 것이 성경을 대표하는 신학으로 자리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입니다.

#### <-그런 진보신학은 왜 필요한가.> 2

“성경의 언어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누구나 성경을 읽지만 누구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성경의 언어가 그것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의 의미로 다가가려면 소위 ‘동일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처한 지금 이곳의 상황이 성경의 상황과 같다고 느낄 때 그는 비로소 성경의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란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닌,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이것을 성경의 역사화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각각의 역사 속에서 그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결코 시대와 역사를 떠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의 의미로 다가간다면, 그것은 그가 십자가 사건에서 지금의 자신과 연결되는 어떤 고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고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동일한 십자가 사건에서 아무런 신앙적 의미도 찾을 수 없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다. 성경을 단순히 믿으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보신학의 역할이라 한다면, 성경과 오늘의 개인을 잇는, 고리를 찾아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진보신학이나 보수 신학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성경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고, 오늘의 나와 연관을 짓지 못하는 성경적 사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로서 정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보수나 진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리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가능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을 전해 주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에게 전해 졌습니다. 전해 주는 자와 듣는 자들의 집단이 처음 부터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연결해 주는 고리로서 공통적 신앙 고백이 없었나요?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도 바꾸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 끼리를 이어 주는 공통성은 없이 개인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교인 상호간을 이어주는 공통성은 없이 개인만 존재합니까?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고리이며 자기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 〈보수 교회에서는 진보 진영을 자유 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축자무오설은 성경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성경을 교리로 이상화하는 것이다. 진보신학자들은 이것을 비판했다. 신학연구는 자유로워야 한다.”

축자무오설을 용어 그 자체로 이해하여 혼자 너털 웃음을 짓는 신사들을 향하여 나도 웃습니다. 비평학이 성서 연구에 공헌을 끼친, 제한적 공헌은 인정하지만, 가치의 척도로서 성경이 갖는 규범성을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모세 오경이 모세가 지은 것이냐? 하면서, 규범성을 던져 버리려 하는 사람들은, 벼룩 한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우는 사람과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교리로 이상화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좀더 솔직한 표현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교리로 이상화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혔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사실 때문에, 로마시대에는 그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전통위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나는  
주교수님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신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신학은 없다. 남산을 제 3 한강교에서 보는 것하고  
북한산에서 보는 것하고 그 모양이 같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제 3 한강교와 북한산에서 동시에 남산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보수신학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신학이라면 진보신학은 그 반대라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섞어서 내려오면서 동시에 올라간다고 할 수도 없다. 각자 고유의 관점과 영역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태도다. 진보와 보수신학자들은 가능한 많은 신학적 대화와 건전한 논쟁을 해야 한다”

주교수님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부터 기독교가 나왔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삼한강교에서 바라보는 남산과 북한 산에서 바로 보는 남산의 모습은  
다르지만, 남산은 하나로 존재하고 있음을 주교수님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교수님은  
그리스도 인이 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수많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산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와 제 3 한강교에서 바로보는 남산이 같을 수 없어, 보편적 신학이 존재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눈으로 주교수님을 바라 보기 때문에, 주교수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물은 없고 지각만 있다'고 하는 말이며, 관념론적 사고 입니다. 주교수님 자신도 관념론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관념론자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없애 버리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주교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바라보는 인본 주의의 관점의 이상 안에서 사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사물에 대한 지각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틀렸다고 주장하지 않은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상에서 주교수님은 벗어나는 것이 중요 합니다.